

봉 축 사

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
되는 5월입니다.

낮에는 신록이 산하(山河)를 장식하고,
밤에는 연등이 천지를 밝히니
천등만화(千燈萬花)가 부처님오신날을
환희로움으로 경하(慶賀)합니다.

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
출현하듯이 어둠 속에서도 지혜구슬은
빛나기 마련입니다.

**흙탕물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
나듯 마음밭의 메마름 속에서도 자비의
감로수는 세상의 논밭까지 적셔줍니다.**

**다름의 천태만상 속에서 같음의
공통점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
백가쟁명 속에서도 원융화쟁의 도리가
있음을 알아야 합니다.**

**이기심과 탐욕의 불길 속에서도
연꽃씨앗은 발아할 인연을 기다리고
있으며 대화와 타협은 더불어 함께
살기 위한 또다른 지혜입니다.**

**사통팔달 소통으로 막힌 곳이 없으니
남녀노소와 내외좌우(內外左右)가 언제나
화합의 광장에서 춤을 춥니다.**

**나눔의 강물이 세상으로 흐르고
흘러 소외된 이웃이 없으니 동포와
다문화 가정의 모두 일가(一家)를 이룹니다.**

**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머물기
위하여 등불을 강물에 걸고, 국민을
받들 줄 아는 공직자를 향하여 등불을
6.2지방선거 광장에 밝히며, 종교간의
화합을 위한 등불의 심지를 돋우어
재삼 점등합니다.**

**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
가르침을 등불삼아 한결같은 정진과
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
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
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**

**2554년 부처님오신날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**